

## 제주지역 중소관광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Business Motivation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repreneur in Jeju

강성일\* · 오상훈\*\* · 정병웅\*\*\*

Kang, Sung-Il · Oh, Sang-Hoon · Chung, Byung-Ung

### ABSTRAC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dominated the tourist supply sector in many geographical areas, spanning attractions, accommodations, transport, recreation, souvenirs, and food/drink suppliers. This study explored and examined the business motivation and personal/soci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repreneu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Jeju tourism industry by making use of survey data from local entreprene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four types of distinctive business motivation: family, leisure, business, and achievement orientation. More important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se four types of entrepreneur's business motiv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s/her age, income, years of residence, business type, previous occupation, years of previous occupation, and parent's role model.*

핵심용어(Key words): 기업가(Entrepreneur), 사업동기(Business motivation),  
배경특성(Background characteristics),  
중소관광기업(Small and medium-sized tourism enterprises)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시간강사. e-mail: allocentric@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shoh323@cheju.ac.kr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cbung@sch.ac.kr

## I. 서    론

경제발전에 있어 기업가(entrepreneur)의 역할과 중요성은 실무적·학문적 연구의 주제로 경영·경제·심리학적 측면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이는 최근 세계화·개방화의 확산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과 동태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생산 부가가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박윤재·윤현덕·김영수, 2000).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해 시장의 기회를 찾아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기업가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기업만의 고유한 자원이며, 이것이 기업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보아 기업가 관련 요인을 경영의 핵심자원으로 크게 중시하고 있다(이춘우, 2004).

기업가 분석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인 연구의 초점은 성공한 기업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구명하는 것이다(Morrison, Rimmington & Williams, 1999; 고광명, 2004). 이를 구명하기 위한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업동기와 같은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중심을 둔 접근법이며, 둘째는 기업가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배경에 초점을 둔 것이고, 셋째는 기업가의 출현을 촉진하는 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동기와 배경적 특성은 연구의 시발점일 수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가 개인의 특성 접근법이 개념적 불명확성, 이론적 근거의 미비, 방법론적 결함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업가의 개인특성은 중소기업의 창업, 생존, 그리고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는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이지우, 2000).

산업적 자원이 부족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대부분의 관광목적지에서 관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최승목·김남조, 2005). 하지만 관광현상의 복합적 특성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부여해 소규모 개인기업에서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광기업이 존재하게 한다(Echtner, 1995).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타산업부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광공급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대기업 관점에서의 논의는 관광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는 하지만 이 분야에서 사업적 기회를 추구하려는 예비 기업가나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외의 경우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가의 개인특성 연구는 주목받고 있는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Dewhurst & Horobin, 1998; Russell & Faulkner, 2004).

이와 같이 다른 산업부문과 국외 관광연구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가가 어떻게 사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배경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중소기업가의 특성이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변수 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있으므로 중소기업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적 기반이 약해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은 국내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해 가장 적합한 지역일 수 있다.

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 연구는 중소기업 연구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광부문의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를 조사하고, 이러한 사업동기가 배경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문헌고찰

### 1.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

중소기업의 개념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관련해 기업가특성 요인은 조직특성, 전략특성보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세준, 2006).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동기는 기업의 전략이나 목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 왔다(Dewhurst & Horobin, 1998).

지금까지 제조·벤처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업동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로 성취나 이윤추구와 관련한 경제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

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e, Kolvareid & Westhead, 1991). Lee & Venkararaman (2006)은 사업동기를 야망(aspiration)과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ies)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즉, 사람들은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추구하는 야망(욕구 또는 필요)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록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기존 경영·경제학 분야에서의 사업동기 연구는 중소기업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가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부문에 기업가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에 있어 주요 특성을 다양성과 비경제적 동기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Shaw, Williams & Greenwood, 1987; Dewhurst & Horobin, 1998; Altjevic & Doorne, 2000; Shaw, 2004; Getz & Petersen, 2005). 즉, 관광중소기업 부문의 사업동기는 도전과 자극, 사업기회추구, 라이프스타일, 이윤추구 등 다양하지만, 경제적 동기보다는 성장보다는 생존과 관련하고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추구라는 비경제적 동기가 다른 부문보다 중요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Shaw et.al.(1987)는 영국 Cornwall의 중소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중소기업 소유경영자는 ‘Cornwall에 살기 위해서’, ‘퇴직 후 재취업의 하나로’와 같은 이전 직업을 떠나는 것이나 ‘청정환경에서의 삶’과 같은 입지적 혜택, ‘가족과 함께’와 같은 항목들이 중소기업 창업의 주요한 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Boissevain(1997)은 소규모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가를 소유경영자로 파악하고 독립성과 자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창업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Dewhurst & Horobin(1998)은 그들의 연구에서 중소기업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견해에 따른 저자본력, 경영기술부족, 낮은 진입장벽 등과 사업동기면에서의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소기업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개인가치와 관련한 비경제적 사업동기 요인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부문의 창업은 생산보다는 소비적 측면이 강함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가는 사업동기에서 성취·이익추구라는 심리적·경제적 측면보다 가족이나 여가, 청정환경에서의 삶 등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고 같은 행위·

배경특성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제조업 등의 다른 분야의 기업가와 중소기업가를 구분되는 사업동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

기업가와 관련한 개인 및 사회적 배경은 사업동기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시켜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근무경험(경력)과 직위, 인적네트워크, 부모의 역할모델 등의 개인배경과 문화의 대리변수인 출신지역 등의 사회적 배경은 사업동기와 관련한 주요한 변인들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배경특성은 실증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가 이해를 위한 배경 특성적 접근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백운정, 2003).

성별과 연령, 학력, 소득은 기업가의 사업동기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특성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Breen, Calvert & Oliver, 1995; 이상석, 2006), 여성기업가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승진기회의 상실이나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족의 해소와 같은 비경제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가는 이윤추구나 성취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장지향의 추동력이 약한 특성을 갖는다. 연령과 관련해 Mydans(2001)는 젊은층이 보다 모험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에 보다 유인되는 반면, 은퇴자와 같은 고연령층은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사업동기가 중요하다고 본 반면, Leana & Feldman(1992)은 자영업 선택은 고연령층이 근로시장에서 차별이 보다 현저하기 때문에 창업할 의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본다. 한편, 학력과 창업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첨단산업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irley & Borburn(1987)는 벤처기업가와 Fortune지에 나타난 일반기업의 경영자를 비교한 결과 벤처기업가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인적네트워크, 근무경험과 직위, 부모의 영향, 창업경험 등도 사업동기와 관련해 주요한 특성으로 취급된다. 인적네트워크는 신생기업과 관련한 주요 경영자원으로 볼 수 있다(Birley, 1985; 이춘우, 2004). 즉, 기업가들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내에서 활동하며, 이는 개인간 관계속에 있는 당사자간에 신뢰와 몰입을 심화시켜 사업기회의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Birley(1985)는 운영단

계에서는 은행, 회계사, 법률가를 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이 강하지만, 창업단계에서는 가족, 친구, 업계인사를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강함을 밝혔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장에서 보면, 부모나 가족 중 일원이 기업가인지의 여부 즉, 기업가가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기업가가 되기 쉽다(전병유, 2003). 창업경험이나 근무경험 등의 변수 또한 기업가들이 제품 또는 시장에 대해 익숙하거나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식도 축적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Cooper & Gascon, 1995).

한편, 신유근(1995)은 한국기업가의 사업동기는 이윤추구라는 단순한 경제적 동기를 통해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권력의 행사라는 사회적 동기를 통해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고광명(2006)은 일본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세와 국가공헌을 일본기업가의 주요한 사업동기 요인을 밝히고 있다. 즉, 전후 일본기업가 176명을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 조상신분과 부친직업으로 구분한 배경특성과 가업 및 가족부양, 개인의 성공과 출세, 국가 및 사회공헌으로 구분한 사업동기 유형에 있어 차이를 분석하고 조상신분이 농업이고 부친신분이 상업인 경우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비중이 높았지만 나머지 경우 ‘국가 및 사회공헌’의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보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모든 이윤추구와 성취욕구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 비경제적 동기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관광부문과 관련해서는 비경제적 동기추구는 업종과 지역(특히, 도시나 농촌지역), 출신지역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as, 1998; Getz & Carsen, 2000; 오상훈·강성일, 2005; Donenico, 2005). 대체적으로 여행업보다는 숙박업에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과 같은 입지적 편익이 강조되는 농촌지역이, 이민자나 이주자가 정착한 이들보다는 지역출신 중소관광기업가의 사업동기를 설명하는데 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민이나 이주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서핑이나 스쿠버다이빙, 생태관광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삶의 철학, 자연여건의 영향이 높은 중소관광사업인 경우 삶의 방식인 라이프스타일을 고수하고 관광목적지에서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을 결정하는 경향도 보고 되고 있다(Russell & Faulkner, 2004). 이러한 경향은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에서 생산으로 전이(from lifestyle consumption to lifestyle production)된 현상이기도 하다(Shaw & Williams, 2004).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소관광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실증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제주지역 관광 관련 중소사업자로 규정하고, WTO(2001)의 중소관광기업 분류에 기준에 의거해 종업원 수 10인 이하이고 주 영업대상이 관광객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제주도청 관광정보 홈페이지(<http://cyber.jeju.go.kr>)에 등록된 관광업체 목록을 기반으로 외부지역 대기업을 운영하는 특급호텔,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총 69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방문 조사하였다. 이는 제주도청 관광정보 홈페이지는 통계에 포함된 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서핑, 낚시 등의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체 관련 정보와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회수된 설문지 288부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27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수율은 41.4%였다. 회수율이 낮은 것은 최초 방문시 창업 기업가를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펜션과 같은 소규모 숙박업의 경우 다수가 위탁관리인이나 직계가족 중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가족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문헌고찰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배경특성으로 성별, 학력, 연령, 소득, 거주년수, 업종 등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력, 이전직위와 근무년수, 출신지역, 인적네트워크, 창업경험, 부모의 역할모델, 업종 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동기는 Getz & Carsen(2000)이 이용한 13항목을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분석방법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개별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 1) 인구통계적 특성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86.9%(238명), 여성 13.1%(36명)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49.6%(136명), 전문대졸 34.3%(94명), 고졸이하 16.1%(44명), 연령별로는 40대 44.5%(122명), 30대 이하 29.2%(80명), 50대 이상 26.3%(72명), 소득수준은 상위 10.4%(28명), 중위 79.1%(212명), 하위계층 10.4%(28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38	86.9	거주 년수	4년이하	24	8.9
	여성	36	13.1		5년-9년	28	10.4
학력	고졸이하	44	16.1		10년-14년	28	10.4
	전문대졸	94	34.3		15년-19년	24	8.9
	대졸이상	136	49.6		20년이상	166	61.4
연령	30대이하	80	29.2	업종	숙박업	50	19.8
	40대	122	44.5		여행업	58	23.1
	50대 이상	72	26.3		음식점업	50	19.8
소득	하위계층	28	10.4		도·소매업	36	14.3
	중류계층	212	79.2		관광농업	22	8.7
	상위계층	28	10.4		기타관광관련 업	36	14.3

주) 결측값은 제외하고 계산함

거주년수별로는 20년 이상 61.5%(166명), 5년~9년과 10년~14년이 각각 10.4%(28명), 4년이하와 15년~19년 사이가 각각 8.9%(26명)의 순이었고,

업종별로는 숙박업 50명(19.8%), 여행업 58명(23.0%), 음식점업 50명(19.8%), 도·소매업 36명(14.3%), 관광농업 22명(8.7%), 기타관광서비스업 36명(14.3%)로 나타났다.

## 2) 배경특성

중소관광기업가들의 배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경력, 이전분야 근무년수, 이전직위, 창업경험, 부모의 역할모델, 인적네트워크, 출신지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배경특성

특성	항목	빈도 (명)	비율 (%)	특성	항목	빈도 (명)	비율 (%)
주요 경력	대기업근무	34	12.3	이전 직위	임원급	18.8	40.6
	중소기업근무	52	18.8		관리직	46.1	59.4
	정부/교육/연구기관근무	26	9.4		사원	35.1	36.2
	관광관련기업근무	66	23.9	창업 경험	있음	112	40.6
	자영업	42	15.2		없음	164	59.4
	현사업운영	32	11.6	부모의 역할모델	있음	100	36.2
	기타	24	8.7		없음	176	63.8
이전분야 근무년수	4년 이하	40	14.8	인적 네트워크	있음	168	61.3
	5년~9년	72	26.7		없음	106	38.7
	10년~14년	80	29.6	출신 지역	제주	166	61.5
	15년~19년	42	15.6		제주외지역	104	38.5
	20년 이상	36	13.3				

주) 결측값은 제외하고 계산함.

주요경력별로는 관광관련기업근무 23.9%(66명), 중소기업근무 18.8%(52명), 자영업 15.2%(42명), 대기업근무 12.3%(34명)명, 현사업운영 11.6%(32명), 정부·교육·연구기관 근무 9.4%(26명) 등의 순을 보였고, 이전분야에서의 근무년수는 10년~14년 29.6%(80명), 5년~9년 26.7%(72명), 15년~19년 15.6%(42명)이었다. 이전분야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11.17년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위별로는 관리직 46.1%(118명), 사원 35.1%(90명), 임원급 18.8%(48명)의 순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평균근무년수가 11.17년이라는 사실과도 관련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창업경험별로는 없음 59.4%(164명), 있음 40.6%(112명)이었으며, 부

모의 창업경험과 관련한 역할모델은 ‘있다’ 36.2%(100명), ‘없다’ 63.8%(176명)이었으며, 창업 전 창업기업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련한 인적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있다’ 61.3%(168명), ‘없다’ 38.7%(106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신 지역별로는 제주지역 출신 61.3%(166명), 제주지역 외 출신 38.7%(106명)로 나타났다.

## 2. 사업동기

중소관광기업가의 사업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Getz & Carsen(2000)이 이용한 13항목을 이용하여 베리맥스법을 이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의 값이 0.4 이하를 보이는 1개의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개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하여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요인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0.6이상을 보여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명은 요인적재량 값을 기준으로 ‘가족지향’, ‘여가지향’, ‘사업지향’, ‘성취지향’이라 명명하였고,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35.3%, 13.4%, 9.2%, 8.3%를 보였다.

<표 3> 사업동기의 요인분석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공통성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신뢰도 계수
가족 지향	사업체를 가족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801	.663	4.240	35.3	.737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787	.715			
	실업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706	.551			
여가 지향	부수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19	.435	1.616	13.4	.833
	내 여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874	.853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 위해서	.802	.788			
사업 지향	정정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754	.712	1.107	9.2	.698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833	.718			
	기업운영으로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659	.602			
성취 지향	퇴직 후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51	.584	1.002	8.3	.642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828	.703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760	.614			

주) 총분산설명력은 66.2%.

### 3. 사업동기와 배경특성의 관계

####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업동기차이

사업동기와 성별, 학력, 연령, 소득, 거주년수, 업종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업동기차이

구분		가족지향	여가지향	사업지향	독립지향
성별	여성	2.96	3.12	3.50	3.77
	남성	2.91	3.12	3.43	4.02
	F값	.039	.001	.142	1.696
학력	고졸이하	2.83	3.26	3.15	3.59a
	전문대졸	2.97	3.02	3.02	4.05bc
	대졸이상	2.91	3.14	3.14	4.07c
	F값	.236	.587	2.794	3.982*
연령	30대이하	2.78	2.78a	3.54	3.95
	40대	2.90	3.28bc	3.31	4.05
	50대이상	3.12	3.24c	3.54	3.91
	F값	1.612	4.228*	1.687	.493
소득	상류층	2.86	2.90	3.71	4.25
	중류층	2.93	3.14	3.43	3.96
	하위층	2.87	3.16	3.25	3.92
	F값	.062	.464	1.410	.955
거주년수	4년이하	2.66	2.78a	3.48	3.87
	5-9년	2.77	3.10a	3.57	3.83
	10-14년	3.03	3.02a	3.32	3.97
	15-19년	2.94	3.14a	3.33	4.16
	20년이상	3.26	3.68b	3.45	4.17
F값	1.789	2.444*	.656	1.076	
업종	숙박업	3.14b	3.51b	3.70b	3.96
	여행업	2.37a	2.71a	3.01a	4.08
	음식점업	3.15b	3.20ab	3.37ab	3.82
	도·소매업	2.73b	3.08ab	3.44b	3.67
	관광농업	3.22b	3.18ab	3.78b	4.18
	기타관광관련업	3.10ab	3.07ab	3.56ab	3.97
F값	4.385**	2.313*	3.510**	1.010	

주)\* p < 0.05, \*\*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과 소득은 네 가지 사업동기 요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들인 반면 학력과 연령, 거주년수, 업종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은 독립지향 동기요인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에 나타났듯이 고졸보다 대졸이상인 고학력자들에게 높은 평균값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독립지향적 동기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과 거주년수는 사업동기 요인 중 여가지향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의 청년층보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여가지향적 동기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년수에 따라서는 19년 이하와 20년 이상 장기거주자들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독립지향을 제외한 가족지향, 여가지향, 사업지향의 3가지 사업동기와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지향 동기는 여행업이 가장 낮고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관광농업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여 이들 업종이 여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동기에 있어 가족지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가지향과 관련해서는 숙박업과 여행업이 차이를 보였는데, 여행업보다는 숙박업이 여가지향적 사업동기의 평균값이 높았고, 사업지향과 관련해서는 여행업과 숙박업 도·소매업, 관광농업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행업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업, 관광농업의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 2) 배경특성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사업동기에 따른 3가지 기업가유형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전경력, 이전분야 근무년수, 이전직위, 창업경험, 부모의 역할모델, 인적네트워크, 출신지의 7가지 항목의 배경적 특성에 따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전직위와 창업경험, 출신지를 제외한 4가지 배경특성과 사업동기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경력 은 가족지향과 여가지향과만 유의했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 보듯이 관광관련기업 경력보다 정부·교육·연구기관 경력자들이 가족지향이 높으며, 여가지향 동기와 관련해서는 관광관련기업과 중소기업 경력자와 정부·교육·연구기관 경력자가 차이를 보이고 후자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전분야 근무년수는 여가지향과만 차이를 보였는데, 4년 이하보다는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이 여가지향에 높게 동기부여됨을 보여 주었다. 부모의 역할모델은 독립지향과만 차이

를 보였고, 부모가 사업 유경험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사업동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사업과 관련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모두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표 5> 배경특성에 따른 사업동기 차이

구분	가족지향	여가지향	사업지향	독립지향	
대기업	3.35bc	3.33ab	3.77	4.05	
중소기업	2.81ab	2.78a	3.38	3.73	
정부·교육·연구기관	3.45c	3.55b	3.52	4.04	
이전경력	관광관련기업	2.43a	2.83a	3.33	4.12
	자영업	3.06bc	3.22ab	3.43	3.92
	현사업운영	3.17bc	3.43ab	3.61	4.25
	기타	2.85ab	3.38ab	3.08	3.79
F값	4.436**	2.395*	1.373	1.246	
이전분야 근무년수	4년이하	2.66	2.78a	3.48	3.87
	5-9년	2.77	3.10ab	3.57	3.83
	10-14년	3.03	3.02ab	3.32	3.97
	15-19년	2.94	3.14ab	3.33	4.16
	20년이상	3.26	3.68b	3.45	4.17
F값	1.759	2.444*	.656	1.076	
이전직위	임원급	2.71	3.00	3.42	4.04
	관리직	2.98	2.96	3.34	3.88
	사원	2.92	3.31	3.53	4.00
F값	.910	2.158	.897	.456	
창업경험	없음	2.91	3.04	3.39	4.06
	있음	2.94	3.23	3.50	3.87
	F값	.047	1.400	.673	1.964
부모의 역할모델	없음	2.97	3.16	3.36	3.87
	있음	2.83	3.04	3.56	4.18
	F값	.922	.612	2.278	5.395*
인적네트 워크	없음	2.74	2.87	2.94	3.59
	있음	3.06	3.31	3.79	4.22
	F값	4.952*	7.862**	52.875**	24.995**
출신지	제주	2.81	3.12	3.36	3.95
	제주외지역	3.03	3.16	3.50	3.98
	F값	2.264	.066	.992	.079

주) \* p < 0.05, \*\* p < 0.01, a<b<c duncan의 사후검증

## V. 결 론

중소관광기업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데 있어 관광연구의 주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업가의 사업동기는 사업목표나 사업전략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기업가 이해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를 문헌고찰을 통해 규명하고, 이들 사업동기가 기업가 개인의 배경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지역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는 가족·여가지향과 같은 비경제적 동기가 기존 관련분야에서 언급된 이익추구·성취추구와 같은 전통적 기업가의 사업동기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진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동기 요인은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력, 소득, 거주년수 및 업종과, 배경특성 중에서는 이전경력, 이전분야, 근무년수, 부모의 역할모델, 인적네트워크와 관련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경제적 동기와 관련해 주요한 특성변수는 연령과 거주년수, 업종, 이전경력, 이전분야 근무년수로 나타났는데, 연령과 거주년수가 많을수록, 여행업보다는 숙박업에서, 관광관련기업보다는 정부·교육·연구기관 출신에서 근무년수가 길수록 가족이나 여가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역할모델은 독립지향 사업동기 요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인적네트워크의 경우 4가지 사업동기 요인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중소기업가의 사업동기와 배경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광부문에 있어 가족지향과 여가지향이라는 비경제적 사업동기가 제조업 등의 다른 분야와 차별화되는 면이라고 보는 주장(Getz & Carsen, 2000; Ateljevic & Doorne, 2000; 오상훈, 2003; Shaw, 2004)을 지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업동기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개인의 배경특성을 다룸에 있어 학력, 소득, 거주년수, 업종, 이전경력, 이전분야, 근무년수, 부모의 역할모델, 인적네트워크 등의 변수들이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지역이나 산업여건 등의 상황변수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가 제주지역 중소기업가의 이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우선, 분석결과 주요한 사업동기 요인으로 가족지향과 여가지향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관광기업가의 동기적 특성이 단순히 기업설립과 운영에 있어 이익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나 성취추구라는 전통적 관점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렵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여가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고 같은 삶의 방식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기업가들의 배경특성이 학력과 연령이 높고, 정부·교육·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펜션과 같은 소규모 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들 기업가들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기업형이기보다 생계형임을 뜻한다. 따라서 왕성한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기업의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안정성 등에 기여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나 여가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의 생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Donenico, 2005)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소관광기업의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소관광기업가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요청되며, 지원 정책은 생계형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낮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극복하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상을 제주지역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중소관광기업 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광명(2004).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동아연구』, 51, 191-216.
- 박운재윤현덕·김영수(2000). 창업활성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GEM 국제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8, 87-113.
- 백운정(2003). 여성창업자의 자기유능감과 사회적 기술, 인적자본이 관리역량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연구』, 27(3), 191-218.
- 신유근(1995). 『한국대기업의 경영특성』, 세경사.
- 오상훈(2003). 제주지역 관광관련 개인사업자의 특성과 사업성패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4(3), 73-90.
- 오상훈·강성일(2005). 제주지역 펜션사업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과 수용. 『관광

- 학연구』, 29(1), 191-208.
- 유세준(2006) 중소기업 혁신전략 영향요인. 『e-비즈니스연구』, 7(2), 2006, 77-96.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2006, 45-64.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이준우(2004). 벤처기업 핵심경영자원의 개념적 모델과 연구과제: 자원기초이론 및 벤처경영자원 선행문헌 리뷰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7(1), 33-69.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9), 149-179.
- 최승목 · 김남조(2005).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담당 공무원의 태도. 『관광학연구』, 29(1), 209-227.
- Altjevic, J., & Doorne, S.(2000). 'Staying within the fence': lifestyle entrepreneurship in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8(5), 378-392.
- Birley, S., & Borburn, D.(1987). Owner and manager: the venture 100 vs. the Fortune 500.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351-363
- Birley, S., (1985). The role of networks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 107-117.
- Boissevain, J.(1997). Small european entrepreneurs. in Rutten, M. & Upadhya, C. (eds.),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in asia and europe: toward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s.
- Cooper, A. C., & Gascon, F.G.G.(1995). Entrepreneur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 firm performance. in Sexton, D.L. & J.D. Kasard.(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PWS-KENT.
- Dewhurst, P., & Horobin, H.(1998). Small business owner, in Rhodri Thomas(eds). *The management of small tourism and hospitality firms*. N.Y.: Cassell, 19-38.
- Echtner, C.(1995). Entrepreneurial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2(1), 119-134.
- Getz, D., & Carsen, J.(2000).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family and owner-operated businesses in the rural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s. *Tourism management*, 21, 547-560.
- Getz, D., & Petersen, T.(2005). Growth and profit-oriented entrepreneurship among family business owners in the tourism and

- hospitality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4(2), 219-242.
- Leana, C. R., & Feldman, D. C.(1992). *Coping with job loss: how individuals, organization and communities respond to layoffs*. N.Y.: Lexington Books.
- Morrison, A.J., Rimmington, M., & Williams, C.(1999). *Entrepreneurship in the Hospitality, Tourism and leisure industry*.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Mydans, S.(2001). *Singapore, hoping for a baby boom, makes sex a civic duty*. N.Y. Times(April 21).
- Russell, R., & Faulkner, B.(2004). Entrepreneurship, chaos and the tourism area lifecyc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556-579.
- Shane, S., Kolvareid, L., & Westhead, P.(1991).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part1).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431-446.
- Lee, J.H., & Venkataraman, S. Aspirations, market offerings, and the pursui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1), 107-123.
- Shaw, G.(2004). Entrepreneurial culture and small business enterprises in tourism. in Lew, A., Hall, C.M., & Williams, A. (eds.), *A companion of tourism*. Oxford: Blackwell.
- Shaw, G., & Williams, A.M.(2004). From lifestyle consumption to lifestyle production: changing patterns of tourism entrepreneurship. in Thomas, R.(eds.), *Small firms in tour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Elsevier,
- Shaw, G., Williams, A.M., & Greenwood, J.(1987) *Tourism and the economy of Cornwall: a firm level study of operation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Exeter. Exeter: Tourism Research Group.
- Breen, J., Calvert, C., & Oliver, J.(1995). Female entrepreneurs in australia: an investigation of financial and family issues.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3(4), 445-461.
- Thomas, R.(1998).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mall tourism and hospitality firm. in Thomas, R.(eds.), *The Management of small*

*tourism and hospitality firms*. London: Cassell.

Domenico, D.(2005). Producing hospitality, consuming lifestyles: lifestyle entrepreneurship in urban Scotland. in Jones, E., & Haven-Tang, C.(eds.), *Tourism SMEs, service quality and destination competitiveness*, CABI publishing.

WTO(2001). *The fut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European tourism faced with globalization*. Budapest, Hungary, May, 24-25.

<http://cyber.jeju.go.kr>

2007년 4월 27일 접수

2007년 6월 25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룹